

저출생·가족패널조사와 인구변화 대응¹⁾

조선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센터 부연구위원

들어가며

✓ '저출생·가족패널조사'의 개념과 목적

- 본 조사는 우리사회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위기 대응을 목표로 가족변화를 중심으로 한 일과 삶의 변화의 종단적 과정을 생애이력 속에 추적 조사하는 패널조사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1기)에 이은 후속패널조사(2기)임.
- 이번 조사는 가족과 일, 생애전망 간의 성평등한 관계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저출생 위기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본 연구는 '저출생·가족패널조사' 구축을 위한 2개년도(2024~2025년) 중 1차 사전연구로 기초연구 수행, 예비조사 설계 및 착수, 국내외 협력관계 조성 등을 수행하였음.

✓ '저출생·가족패널조사'는 국제비교 패널조사로 구축되어, 우리 사회 현안을 다양한 국가의 일·가족양립 및 가족지원 관련 정책환경과 비교·검토함으로써 정책 수요 및 중장기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 정책요구도 측정을 위한 실수요자의 생애유형별 정책수요 및 인식 차이를 분석할 수 있음.
- 정책효과 측정을 위한 비교국가적 접근으로 정책효과의 비교·평가를 가능하게 해줌.

✓ 연구 개요는 다음과 같음.

〈그림〉 저출생·가족패널조사 연구개요



1) 본 원고는 아래 연구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발췌 및 정리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조선미·이동선·강민정·김영숙·한진영·최진희·이서현·박민규·이근복·마민지(2024). 저출생 대응 가족패널조사 사전연구(I).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출생·가족패널조사의 필요성

- 가족구성과 친밀한 관계의 변화 양상을 생애경로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은 저출생 원인 분석과 정책 대응에 필수적임.
- 우리나라는 저출생 대응과 가족, 돌봄 관련 다수의 해외 정책을 도입해왔으나, 이러한 도입이 정책당사자에게 효과적인지의 실증적 분석 가능한 자료는 부족한 편임.
- 「저출생·가족패널조사」는 최근 가족 양상과 일·가족의 생애전망에 대한 변화된 정책환경을 종단적으로 추적하기 위한 패널조사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음. 본 조사는 저출생 위기의 해법을 가족과 일, 생애전망 간의 성평등한 관계의 재구성을 통해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저출생·가족패널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패널조사(1기)의 후속패널(2기)로 수행되며, 조사문항 중 일부는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UNECE)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세대와 젠더 프로그램(Generations & Gender Programme; GGP)」의 국제 패널조사인 「세대와 젠더조사(Generations & Gender Survey; GGS)」의 한국조사로 수행됨.
- 저출생 요인과 가족양상에 대한 국제비교 패널조사를 구축함으로써, 정책투입과 정책당사자의 생애 변화요인 간의 인과성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으며,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인구위기 및 가족변화 전망의 중장기적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국제비교자료는 다양한 국가의 일가정양립과 가족지원에 대한 정책결과를 우리나라 정책수요자들의 경험 및 인식의 차이 속에 비교 가능하게 해줌.
 - 종단자료는 개인 생애사에 걸쳐 정책투입에 따른 정책당사자의 선택과 경로 차이로 삶의 변화요인을 분석하게 해주어 중장기적 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해줌.
- 「저출생·가족패널조사」의 구축을 위해 2개년도(2024~2025년)의 사전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1차년도(2024년)에는 예비조사 기초설계 완료와 실사에 착수하였음. 본 원고에서는 「저출생·가족패널조사」에 대한 기초설계와 조사영역에 관한 주요 특성에 대해 소개하고, 특히 GGS 한국조사 참여에 따른 함의를 중심으로 제시하고자 함.

「저출생·가족패널조사」 예비조사 개요

- 1년차(2024년)의 주요 연구방법으로 ①기초연구(문헌연구, 사례조사, GGS 국가비교 실증분석 등), ②예비조사 설계 및 착수(조사표 개발, 조사도구 개발, 표본설계, 예비조사 실사 등), ③성과확산 및 협력체계 구축(국내외 협력 관계 구축, 패널포럼 개최, 국제세미나 개최) 등이 수행되었음.
 - 예비조사 설계: 예비조사는 전국 2,600가구의 적격가구원 만 19~59세 남녀 1인 약 2,600명 대상으로 실시하였음.
 - 조사표/문항 개발, 검토: 문항이 조사대상자에게 적정방식으로 이해되고 응답되는지 검토하기 위해 일반인 10인 대상 인지면접을 수행하였고, 영역별 전문가 자문(출산/인구, 파트너십 및 가족/돌봄, 노동 및 일·가족양립, 청년 등)을 병행하였음.
- 예비조사는 본조사의 적정 표본규모 산출, 문항/조사표 적정성 검토, 혼합조사 도입 효과의 평가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음. 조사목표는 우리사회의 저출산 요인과 가족변동 현황을 새로운 세대(청년세대)의 생애전망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조사영역은 성평등 여건이 파트너십 형성, 가족구성 및 임신·출산, 돌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크게 GGS 국제조사와 한국 고유조사 영역으로 구성됨.
 - (GGS 국제조사) 개인의 생애과정과 가족동태 관련 국제비교 패널조사로 생애과정의 전환(예: 결혼, 이혼, 출산), 인구통계적 행동(예: 출산 의도, 가족 계획), 세대 간 관계, 경제적 상황과 고용, 성역할과 성평등 관련 주제를 포함하여 설계됨.
 - (한국 고유조사) 우리나라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가구원 및 동거 상황, 주거, 사교육, 가사·돌봄노동, 삶의 질(사회적 지지, 자살생각, 긍정적 기능 등), 일가족양립/일생활균형, 성평등 생애전망 및 출산요건, 삶의 불확실성 및 정책이용 경험, 가족친화·육아친화환경 등의 고유문항을 개발하였음.
 - 조사영역은 인구(demographics), 생애이력(life history), 출산력(fertility), 가구(household), 세대(generations), 웰빙(wellbeing), 일자리(work histories), 소득(income), 태도(attitude), 한국 고유조사(National Core Questionnaire) 영역으로 구분됨.
- 「저출생·가족패널조사(2기)」와 「여성가족패널조사(1기)」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조사대상자가 여성과 남성을 모두 포함하여 가족 내 성별관계와 저출생 정책의 실수요자의 성별 인식 및 경험 차이를 조사할 수 있음.
 - 1년 조사주기 단축으로 가족변동의 효과적 관측과 패널유지율 제고를 도모함.

〈표 1〉 여성가족패널조사(1기) 및 저출생·가족패널조사(2기) 비교

내용	여성가족패널조사('07~25년)	저출생·가족패널조사('26년~)
조사목적	여성 생애의 일·가족 경험 파악 및 가족전망 분석	저출산 등 가족변동 양상과 새로운 세대의 생애전망 분석
조사대상	약 9천 가구, 여성 1만명 (적격가구원: 만19~65세 여성)	약 7천 가구, 남녀 7천명 이상* (적격가구원: 만19~59세 남녀, 추후 변동 가능)
조사주기	2년	1년
조사방법	TAPI	TAPI 및 CAWI/CAMI 혼합조사 방법 도입
조사내용	자체 개발	UNECE, GGP, Generations & Gender Survey(GGS) 국제조사 적용, 한국 고유조사 개발
조사항목	가구+개인+일자리	GGS 국제조사+한국 고유조사
	① 가구	① GGS 국제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및 가족, 주거상태, 가구소득/소비, 자산/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demographics) • 생애이력(life history) • 출산력(fertility) • 가구(household) • 세대(generations) • 웰빙(wellbeing) • 직업력(work histories) • 소득(income) • 태도(attitude)
조사항목	② 개인	② 한국 고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생활, 미혼여성, 결혼생활, 가사노동, 별거/이혼/사별, 임신출산, 자녀교육, 자녀관계,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관계, 가족가치관, 건강과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거가구원 현황 • 주택 및 자산/부채 현황 • 지역 이주경험 • 연애/결혼 의향, 출산 조건 • 난임지원 및 출산 다양성 인식 • 일·가족에 대한 생애전망 • 일가족양립 현황 및 제도 이용, 긴급돌봄, 조직문화 등 • 사교육 이용 현황 • 가족, 육아친화 지역사회 환경 • 사회적 지지/고립, 자살생각 • 삶의 질 인식과 가치관 • 삶의 불안정성과 정책 지원
	③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조사/현재 일자리 등 직업력, 구직, 일만족도, 교육훈련, 직장가 가정생활, 차별사향, 모성보호제도 	

주: *본조사의 적정표본 규모는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 GGS는 Generations and Gender Programme(GGP)에서 구축하는 18~79세 사이 개인의 생애과정과 가족동태를 다룬 국제 패널조사로, 생애과정의 전환(예: 결혼, 이혼, 출산), 인구통계적 행동(예: 출산 의도, 가족 계획), 세대 간 관계, 경제적 상황과 고용, 성역할과 성평등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주요 특징으로 아래와 같음²⁾

- (국가간 비교 가능성) 약 20여개 이상 국가 참여
- (종단적 설계) 3년 주기의 패널구조로 동일 개인의 추적조사
- (대규모 표본 크기) 국가별 평균 10,000명의 응답자를 포함하여 세부집단 및 유효표본수가 작은 사건 분석 가능
- (광범위한 연령대) 최소 18세에서 최대 70세까지 응답자 대상으로 생애 전반에 걸친 데이터 수집
- (미시적 데이터와 거시적 데이터의 결합) GGS 조사자료와 국가지표 데이터베이스의 결합으로 다수준 분석 가능
- (이론 기반의 다학제적 설문지) 인구학, 사회학, 경제학 분야 전문가에 의한 설문지 개발로 가족변화의 원인 및 결과 분석

〈표 2〉 GGS-II(Generations & Gender Survey) 조사대상 국가

유형		참여국가
GGS-II (2020~)	이용가능	(16개국) 부에노스아이레스(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공화국, 크로아티아, 체코 공화국,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카자흐스탄, 몰도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우루과이, 영국
	공개예정	(3개국) 프랑스(예비조사), 홍콩(예비조사), 대만(예비조사),
	조사준비중	(5개국)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한국(※참여 예정)

출처: GGP, Data/GGS - Round II, <https://www.ggp-i.org/ggs-round-ii/> (최종 접속일: 2024.10.14.).

주: 조선미 외(2023). 저출생 대응을 위한 패널조사 자료 구축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87에서 2024년 10월 기준으로 업데이트함.

GGG 문항 특성 및 한국 고유조사 문항 개발

- 예비조사 조사표에서 가족구성, 출산, 일가족양립 주제를 중심으로 GGS 문항의 분석결과와 한국 고유조사 문항 개발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자 함.

- GGS는 2004년부터 구축되어 완료된 GGS-I와 2020년부터 새롭게 추진되는 GGS-II로 구분되며, 저출생가족패널조사는 GGS-II의 한국조사로 참여함. 본지는 GGS-II에서 공개하는 참여국가 원자료를 대상으로 분석 실시하였음.³⁾⁴⁾

- 가족구성과 GGS 국제 비교분석 결과

- 우리 사회의 가족구성 변화는 국제비교 속에서 그 특수성과 보편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GGS 문항에는 다양한 파트너십과 가족구성 형태를 분석할 수 있는 조사문항이 포함되어 있어 가족다양성에 대한 국제비교 연구가 가능함([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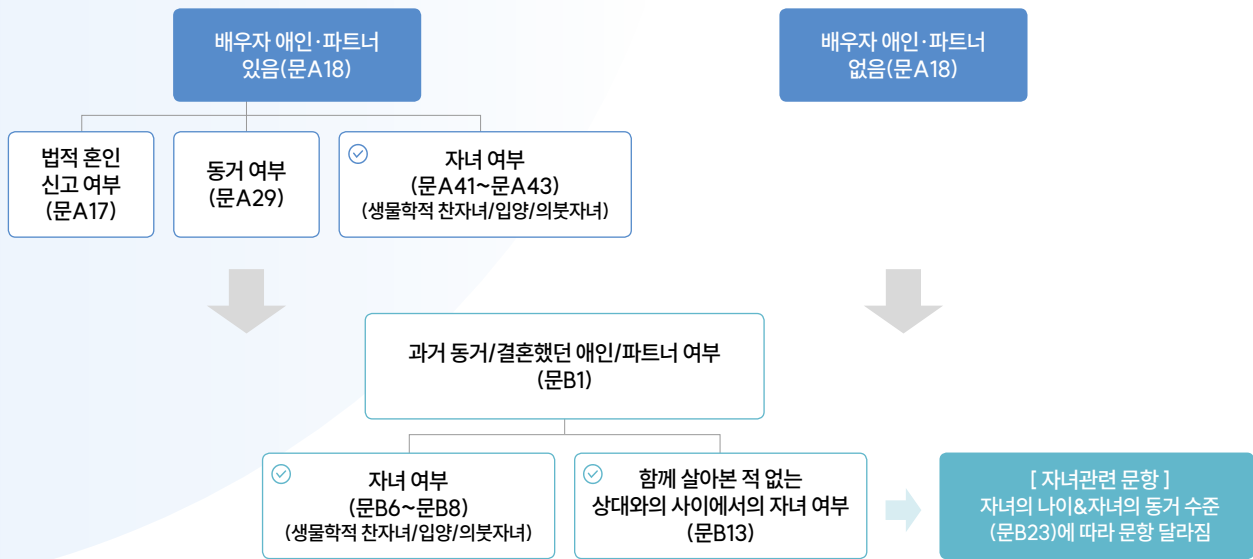
- 비혼동거에 관한 GGS 국제비교 자료 분석결과, 비혼동거 가구비율이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29.02%)와 스웨덴(30.86%)이었고, 영국(15.84%), 체코(18.5%), 오스트리아(18.89%)는 20% 이하로 낮게 나타남(〈표 3〉).

3) 본 연구는 '세대 및 젠더 프로그램(Generations and Gender Programme, www.ggp-i.org)'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음. 세대 및 젠더 프로그램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컨소시엄 이사회(Consortium Board Members), 및 각국의 국가 연구지원 기관(National Funding Bodies)으로부터 연구지원을 받았으며,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함(This paper uses data from the Generations and Gender Programme (www.ggp-i.org). The Generations and Gender Programme has received funding from the European Commission, its Consortium Board Members, and National Funding Bodies, which are gratefully acknowledged.).

4) 국가별 원자료의 인용 및 사사표기는 하단 링크로 대체함(GGP, Acknowledgement and Citation Guidelines, <https://www.ggp-i.org/acknowledgement-and-citation/>, 최종 접속일: 2024.10.14.).

<그림 1> GGS 가족구성 측정: 파트너십과 자녀 유형

(단위: %)



출처: 한국리서치(2024.11.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출생·가족패널조사」 예비조사 면접원 교육자료.

<표 3> 국가별 비혼동거 가구 비율

(단위: %)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체코	스웨덴	아르헨티나	덴마크	핀란드	영국
비혼동거	20.33	23.41	29.02	18.89	18.51	30.86	24.29	19.32	22.96	15.84
그 외	79.67	76.59	70.98	81.11	81.49	69.14	75.71	80.68	77.04	84.16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GGP, GGS- II (1차 Wave), 각 국가별 원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해 분석

● 출산 요건과 GGS 국제 비교분석 결과

- GGS는 출산 요건과 관련하여, 향후 출산 계획이나 의향 기대 자녀 수뿐만 아니라 개인의 출산의지 및 계획을 분석하는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 TPB)'에 기반하여 출산과 관련된 태도, 주관적 규범, 행위 통제 인식에 대한 구조화된 질문을 포함하고 있음. GGS 문항 적용은 우리 사회의 출산 경향 및 행위를 설명하여 저출생 대응의 정책적 프레임에 지지할 수 있음.
- GGS 문항 중에 가족 및 출산 관련 가치관에 대한 국가별 차이를 살펴보았음. “여성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위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네덜란드(90.40%)와 노르웨이(84.01%)에서는 매우 높은 반면, 반면 체코(40.94%)와 아르헨티나(13.00%)에서는 동의 비율이 낮아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강조가 높게 나타남. 한편,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일을 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문항에서, 핀란드(83.46%)와 덴마크(69.99%)의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더 높았으나, 오스트리아(34.02%)와 아르헨티나(31.99%)는 동의한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음.

〈표 4〉 국가별 가족 및 출산 가치관

결혼은 구시대 산물이다										
구분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체코	아르헨티나	덴마크	핀란드	영국	전체
비동의	52.72	45.52	49.30	52.11	75.56	34.9	51.03	44.93	59.89	53.25
중간	27.61	34.87	35.48	28.01	19.08	31.05	34.12	31.34	22.14	28.67
동의	19.67	19.61	15.22	19.88	5.36	34.05	14.86	23.73	17.98	18.08
여성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녀를 가져야한다.										
구분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체코	아르헨티나	덴마크	핀란드	영국	전체
비동의	65.07	90.40	84.01	71.92	28.53	71.83	64.83	82.46	78.98	69.73
중간	21.42	6.41	12.48	15.52	30.53	15.17	25.39	12.36	15.76	18.16
동의	13.51	3.19	3.51	12.56	40.94	13.00	9.78	5.17	5.26	12.11
남성이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녀를 가져야한다.										
구분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체코	아르헨티나	덴마크	핀란드	영국	전체
비동의	63.35	88.88	84.83	67.76	31.59	70.18	65.36	80.36	76.57	68.58
중간	22.91	7.74	11.46	16.79	36.93	17.36	26.03	13.80	17.86	19.85
동의	13.75	3.38	3.71	15.46	31.48	12.46	8.61	5.84	5.58	11.57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가 일을 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구분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체코	아르헨티나	덴마크	핀란드	영국	전체
비동의	63.39	58.97	83.32	48.24	53.33	44.45	69.99	83.46	53.86	62.24
중간	18.11	22.74	12.59	17.74	28.14	23.57	22.11	11.26	28.54	21.11
동의	18.50	18.29	4.09	34.02	18.53	31.99	7.90	5.29	17.60	16.65
전체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자료: GGP, GGS-II (1차 Wave), 각 국가별 원자료에 가중치를 부여해 분석

● 출산과 생애전망에 대한 GGS 문항 및 한국조사 문항 개발

- GGS의 출산 관련 문항은 인구학 분야의 핵심 출산지표(출산자녀, 계획자녀, 실제자녀, 이상자녀, 기대자녀, 남성출산율, 원치않는 임신 등)를 포함하도록 설계되어 있음(〈표 5〉). 예를 들어, 이상자녀 수가 실제자녀 수로 실현되었는지와, 생애 특정 시기에 어떤 조건이 충족될 때 출산이 실현 가능한지를 분석 가능하게 해줌.

〈표 5〉 GGS의 출산지표와 측정 방법

출산지표	측정방법
출산자녀 수	- 응답자의 생물학적 자녀
계획자녀 수	- 응답자의 의향(intention)에 따라 실천(practice)되어 갖게 된 자녀로, 생물학적 계획자녀와 그 외 계획자녀(입양자녀)로 구분
실제자녀 수	- 친자녀+입양자녀+의붓자녀로 산출됨 • 친자녀: 생물학적 자녀로, 정자/난자기증, 대리출산도 포함됨 • 입양자녀: 입양으로 갖게 된 자녀로, 재혼가정에서 의붓자녀를 입양하기도 함 • 의붓자녀: 혼인관계(법률혼, 사실혼)의 파트너십에 의해 갖게 된 자녀(재혼 등)
이상자녀 수	- 개인적 차원의 이상자녀(희망자녀)+사회적 차원의 이상자녀로 산출
기대자녀 수	- 계획자녀 수+실제자녀 수로 산출
남성출산을	- 현재까지 생물학적 자녀, 정자/난자기증, 대리출산을 통해 태어난 자녀를 남성에게 측정할 경우
의도하지 않은 출산	-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출산(mistimed birth)', '원치 않는 출산(unwanted birth)'의 두 가지 형태(박종서 외, 2023:89)를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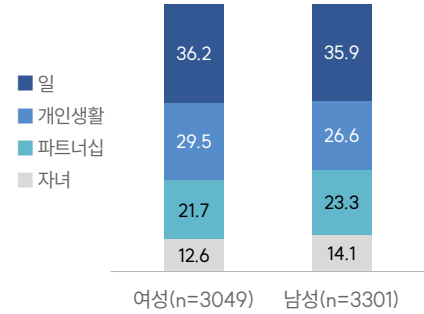
- 한국 고유조사에서는 출산 요건에 대한 나와 배우자(또는 파트너)의 성별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문항을 신규 도입 또는 개선함. 김은지 외(2019:224-225)에 따르면, 출산의 전제조건으로 남성은 '나보다 나은 삶을 물려줌', '나의 경제적 준비', '나의 안정적 일', '안정적 집' 등 본인의 경제적 조건을 중요하게 인식하였으나, 여성은 '파트너의 양육참여', '공평한 가사분담', '파트너의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파트너와의 성평등한 돌봄관계 조성과 일가족 배분의 노력을 중요하게 보면서 성별차이가 있었음.
- 한편, 일과 가족에 대한 생애전망은 출산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임. 김은지 외(2019)의 연구에 따르면, 청년세대는 남녀 모두 노동중심적 생애가 보편화되는 가운데, 청년여성은 가족 구성에 따른 젠더화된 기회실현의 제약을 인지하면서 출산을 기피한다고 보고 있음.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과 파트너십, 자녀, 개인생활에 대한 삶의 중요도에 대한 동 연구의 문항을 도입하여 가족과 일에 대한 선택이 생애전망에 대한 성평등의 기대욕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그림 2> 삶의 중요도와 생애전망 측정 문항 및 김은지 외(2019) 연구 분석결과

문 J1. (삶의 중요도) 귀하는 귀하의 삶에서 다음 영역에 대해 얼마나 중요성을 부여하고 계십니까?
각 영역에 중요 비중을 배분하여 총합이 100이 되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 일, 배우자/파트너, 자녀의 실제 유무와 관계없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영역	중요 비중
1) 일(직업, 직장)	()%
2) 파트너십(연애, 결혼)	()%
3) 자녀	()%
4) 개인생활(개인적인 시간, 여가)	()%
총합	자동계산: 100%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4). 저출생·가족패널조사 예비조사 설문지.

주: 김은지 외(2019) 연구에서 개발한 Q3 문항 및 동 문항에 대한 p.172 분석결과.

● 일·가족양립에 대한 GGS 문항 및 한국조사 문항 개발

- GGS는 고용 형태와 임금, 노동시간 등 유급노동 영역을 비롯하여, 가사노동 및 분담과 같은 무급노동 영역에 대한 문항을 포함함.
- 한국 고유조사에서는 일·가정양립제도와 유연근로제도의 사용 현황에 관한 측정문항을 추가개발한 점이 특징적임. 일·가정양립제도 문항들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의무화된 제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난임치료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포함함.
- 유연근로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명시되어 있는 것 외에는 사실상 법정제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정부에서 일·생활 균형제도의 일환으로 확산하고자 하는 형태의 유연근로제도인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자율출퇴근제, 재택·원격근무제에 대해 앞서와 동일하게 회사의 사용분위기와 사용 여부를 응답하도록 하였음. 이 제도들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일·가정양립실태조사」의 유연근로제도 종류와 동일하게 구성한 것으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주요 제도들의 사용 여부와 사용 용이성(대상자는 누구나 사용 가능한지, 사용 가능하나 사용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있는지, 대상자도 사용하기 어려운지 등)을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제도적 특성이 출산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는지 분석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음.

<표 6> 예비조사 문항에 도입된 일·가정양립제도 및 유연근로제도 유형

일·가정양립제도(일·가족양립제도)		유연근로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차출퇴근제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가	선택근무제
출산전후휴가	가족돌봄휴직	재량근무제
배우자출산휴가(남성만)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자율출퇴근제
육아휴직		재택·원격근무제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4). 저출생·가족패널조사 예비조사 설문지.

저출생·가족패널조사의 주요 과업 및 개선과제

- 「저출생·가족패널조사」 예비조사의 최종 조사표는 <표 7>과 같으며, 향후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 검토되어야 할 주요 과업 및 개선사항은 다음과 같음.
 - 예비조사 결과를 통해 표본 수 대비 주요 생애사건(결혼, 임신 및 출산, 자녀돌봄 등) 검토로 조사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표본규모를 산출할 필요가 있음.
 - 개발된 설문지의 조사표/문항에 대한 적정성 평가 및 주요 생애사건에 대한 유효응답의 확보 가능성을 분석해야 함.
 - 대면조사(TAPI; 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및 온라인 조사(CAWI; Computer-Assisted Web Interviewing, CAMI; Computer Assisted Mobile Interviewing)의 혼합조사방법 도입에 따른 모드효과 분석과 조사방법상 적정성 검토로 안정적인 패널유지율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예비조사 실사과정의 주요 이슈사항에 대한 점검과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여성가족패널조사(1기)의 후속패널(2기)로서 1기패널과의 연속성과 변화된 여성가족 정책환경의 반영을 위한 조사문항 개발과 관련하여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함.
- 저출생·가족패널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인구위기 대응 정책을 보다 정책당사자의 삶의 질을 중심에 두고 가족구성과 생애를 지지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원할 수 있음.
 - 저출생·가족패널조사는 국내 유일의 가족구성 경험과 친밀성 영역에 관한 종단자료이며, 특히 GGS 국제조사의 한국조사로 수행되면서 가족, 출산, 젠더 분야에 대한 국제적으로 검증된 조사항목을 바탕으로 가족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 파트너십, 출산 등 가족구성 과정에 대한 경험과 인식 차이 요인을 추적하기 위한 생애조사로 구축되어 정책대상자별로 맞춤형 정책지원 설계를 가능하게 함.
 - 국제비교 맥락에서 정책성과에 대한 실증적 평가를 가능하게 해줌으로써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자원 배분 및 우선순위의 설정을 통해 실효성 높은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음.

<표 7> 「저출생·가족패널조사」 예비조사 최종 조사표

영역	분류		조사항목
0. 가구원	가구원 기초정보	가구원 정보	응답자 관계, 성별, 출생연도, 연령, 국적, 고용상태, 학력
		가구원 동거	동거여부, 일시적 비동거 사유
1. 인구	응답자 기초정보	응답자 정보	성별, 출생시기, 출생국가(지역, 국가, 이주시기), 거주지역
		활동상태	활동상태 유형, 교육훈련 중: 교육과정, 실업 중: 구직/취업준비
		교육수준	교육수준 유형, 고등교육: 전공, 학력 취득시기

영역	분류		조사항목
1. 인구	주택 및 거주지	주택현황	주거지(방, 면적), 입주시기, 주택소유형태, 주택소유명의, 주택임대형태, 주택 개인소유, 주택자산 액수, 주택 개인임대, 주택 거주유형, 주택 거주층, 주거만족도
		인터넷 이용	인터넷 연결, 인터넷 이용
		언어	가정 내 언어
		거주지역	지난 거주지역(지역, 국가, 이주시기), 이사이유, 이사이유: 대상, 이사/이주의향
1. 인구	현재 파트너	파트너십	파트너 유무
		싱글	싱글: 연애/결혼 의향, 법률혼 의향
		파트너 정보	교제 경로, 출생시기, 성별, 출생국가, 이주시기, 교육수준, 활동상태, 교육훈련 중: 교육과정, 일상생활 제약
	현재 파트너십 유형	파트너십 유형	법률혼 여부, 법률혼 시기, 사실혼 여부, 사실혼 시기, 동거, 교제 시기
		파트너십 의향	동거 의향, 법률혼 전제 동거 의향, 법률혼 의향, 비동거 이유, 비동거 이유 유형(본인 의향, 배우자 의향, 양자 사정)
		파트너십 과거 이력	파트너와 과거 혼인 경험, 파트너와 과거 혼인 시기, 파트너와 과거 이혼 시기
	현재 파트너 관계	파트너 만남	파트너 거주지역, 파트너 만남 빈도, 파트너 연락 빈도
		파트너 관계	파트너 관계만족도, 파트너 의견충돌, 파트너 이별 의향
	현재 파트너와의 자녀	파트너와의 친자녀	현재 파트너와의 친자녀 여부, 친자녀 수
		파트너와의 입양자녀	현재 파트너와의 입양자녀 여부, 입양자녀 수
		파트너와의 의붓자녀	현재 파트너와의 의붓자녀 여부, 의붓자녀 수
2. 생애이력	파트너 이력	과거 파트너십	과거 파트너 유무, 수, 이력, 교제경로, 동거 시기, 법률혼, 법률혼 시기, 연령
		과거 파트너와의 자녀	과거 파트너와의 친자녀 여부, 친자녀 수, 입양자녀 여부, 입양자녀 수, 의붓자녀 여부, 의붓자녀 수
		과거 파트너와의 결별	과거 파트너와의 이별 유형, 이별 시기, 이혼, 이혼 시기, 이혼 절차, 성별
		과거 비동거 파트너와의 자녀	과거 비동거 파트너 자녀 여부, 자녀 수
	자녀 이력	자녀 이력	자녀 여부, 친자녀 수, 의붓자녀 수, 입양자녀 수
		자녀 이력 정보	자녀현황, 생존여부, 친자관계, 부모, 성별, 출생시기, 사망시기
	생존자녀	동거 및 만남	자녀 동거 수준, 동거 장소, 만남 빈도, 돌봄 빈도
		상태	자녀 활동상태, 일상생활제약, 건강상태
	비동거자녀	비동거자녀 동거 및 만남	비동거자녀 과거동거 여부, 만남 빈도, 연락빈도, 거주지역
		비동거자녀 관계	비동거자녀 관계만족도

영역	분류		조사항목
3. 출산	출산	출산의향 및 조건	출산의향, 미래 출산의향, 계획자녀, 출산이 주는 영향, 생애전망(출산 후 일자리 희망, 출산 후 일자리 전망), 출산조건, 출산조건 충족 가능성(본인, 파트너), 출산에 대한 주변 인식
		기대자녀	이상자녀 수, 희망자녀 수, 자녀 선호성별
	임신/난임 및 피임	임신 경험	출산예정일, 원치 않는 임신: 의향, 임신 중인 경우: 시기, 최근 자녀의 원치 않는 임신: 의향, 임신 중이 아닌 경우: 최근 임신 시기
		난임/불임 경험	난임, 출산 후 성재생산 건강, 영구피임/불임, 영구피임/불임시술, 영구피임/불임 사유, 파트너 영구피임/불임, 파트너 영구피임/불임시술, 임신시도, 임신시도 시기, 난임시술
		피임 및 성적자율성	피임방법, 피임자율성, 피임도구 사용, 성관계, 성적자율성
	성재생산 건강	생애 성이력	초경 시기, 완경 시기, 변성기 시기, 첫 성관계 시기
		출산력 보존	난자/정자냉동
4. 가구	동거가구원	동거가구원 현황	동거가구원 유무, 동거가구원 수
		동거가구원 정보	동거가구원 동거 여부, 응답자와의 관계, 동거가구원 성별, 출생시기, 활동상태, 관계만족도, 일상생활제약
	가구관리 및 역할분담	파트너와의 가사돌봄 분담	파트너와의 가사분담 수준, 가사분담 만족도, 돌봄분담 수준, 돌봄분담 만족도, 가사돌봄 분담 시간
		파트너와의 가구경제 협력	파트너와의 가구 의사결정, 파트너와의 가계소득 관리, 가구지출 관리
	자녀돌봄/가사 지원 및 이용	비공식 자녀돌봄	비공식 자녀돌봄 지원 여부, 지원 대상, 지원 시간, 지원 비용
		공식 자녀돌봄	공식 자녀돌봄 이용 여부, 이용 유형, 이용 비용, 이용 시간
		자녀 사교육	자녀 사교육 이용 여부, 이용 비용, 비용 부담
		공식 가사노동	공식 가사노동 이용 여부, 이용 비용, 이용시간
		비공식 가사노동	비공식 가사노동 지원 여부, 지원 대상
	자녀돌봄/가사 제공	비공식 자녀돌봄	비공식 자녀돌봄 제공 여부, 제공 대상
		비공식 가사노동	비공식 가사노동 제공 여부, 제공 대상
5. 세대	친부모	친부모 현황	친모 생존여부, 친부 생존여부, 양친 동거 여부
		친모 정보	친모 출생시기, 사망시기, 출생국가, 출생국가: 국가명, 만남 빈도, 연락 빈도, 관계만족도
		친부 정보	친부 출생시기, 사망시기, 출생국가, 출생국가: 국가명, 만남빈도, 연락빈도, 관계만족도
		친부모 파트너십	친부모 결혼 여부, 친부모 결혼 시기, 친부모 이별 여부, 친부모 이별 시기
	형제	형제 현황	남자형제 수, 여자형제 수, 연상 형제
		친부모 출산 현황	친모 출산시기, 친부 출산시기

영역	분류		조사항목
5. 세대	성장기	성장기 거주 지역	성장기 거주지, 거주지역: 지역명, 거주국가: 국가명, 해외체류
		성장기 부모 정보	성장기 양친 동거, 동거 대상, 부모 관계만족도, 부친 직업, 부친 교육수준, 모친 직업, 모친 교육수준
	동거와 독립	부모와 비동거	부모와의 비동거 경험, 비동거 시기/사유/의향, 동거 사유
		독립 인식	독립 인식
	조손 현황	조부모 현황	조부모 수
		손자녀 현황	손자녀 여부, 손자녀 수, 손자녀 출생시기
	성인돌봄 지원	성인돌봄 수요	성인돌봄 필요 여부
		비공식 성인돌봄	비공식 성인돌봄: 지원 여부, 지원 대상
		공식 성인돌봄	공식 성인돌봄 서비스 이용 여부
	성인돌봄 제공		비공식 성인돌봄 제공 대상
6. 웰빙	자원 교환	경제적 지원 수혜	경제적 지원 수혜 여부, 수혜 대상
		경제적 지원 제공	경제적 지원 제공 여부, 제공 대상
	삶의 질		삶의 만족도
	신체적 건강	건강 및 질환	주관적 건강, 건강 의사결정, 만성/중증질환
		일상생활제약	일상생활제약 여부, 제약 시기
		신체 지표	체중, 신장
	정신건강	행복	전반적 행복도
		외로움 및 우울	외로움, 의논상대, 우울감
		자살	자살생각, 자살계획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망, 사회적 연락망
7. 일자리	활동상태		활동상태 만족도, 활동상태 시기
	경제활동상태		경제활동상태
	주된 일자리	일자리 형태	고용형태, 직업/산업, 임금/소득, 근속기간, 근로시간 형태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근로시간, 휴가, 통근시간, 일자리 소재지
		근로특성 및 일·가족균형	고정근무 여부, 재택근무 빈도, 야간근로 빈도, 야간근로 장소, 주말근무 빈도, 주말근무 장소, 일가정 전이
		고용안정성	실직 가능성, 자발적 퇴사가능성
		조직특성	조직형태, 조직규모, 근로계약 형태, 유연근무 허용
	복수일자리		복수일자리 시간, 복수일자리 중 플랫폼 노동 경험
	자영업자/고용주		유급고용원 수
	출산휴가/육아휴직		출산휴가/육아휴직 복직기회, 복직의향

영역	분류		조사항목
7. 일자리	이전 일자리	이전일자리	이전 일자리 여부
		이전일자리 정보	이전 일자리 직업/산업, 고용형태, 중단 사유, 중단 시기
		취직/이직·창업	취직/이직 또는 창업 의향
	파트너 경제활동		파트너 경제활동상태
	파트너 주된 일자리	파트너 일자리 형태	파트너 고용형태, 직업, 근로시간 형태
		파트너 근로특성 및 일·가족균형	파트너 근로시간, 고정근무/유연근무, 재택근무 빈도, 야간근로 빈도, 야간근로 장소, 주말근무 빈도, 주말근무 장소
		파트너 고용안정성	파트너 실직 가능성
		파트너 조직 특성	파트너 조직형태, 근로계약 형태, 유연근무 허용
	파트너 복수일자리		파트너 복수일자리 여부, 근로시간
	파트너 자영업자/고용주		파트너 유급고용원 수
	파트너 이전 일자리		파트너 이전 일자리: 이전 일자리 여부, 이전 일자리 중단 사유
8. 소득	가구 자산	부동산 자산 현황	부동산 자산
		고액자산 현황	고액 사적증여 여부, 대상, 시기
		가구 경제상황	가구 경제상황 수준, 불안정성, 전망
		빈곤 현황	사회경제적 박탈 수준
		가구소득 현황	가구소득 유형, 가구소득 전체(가처분소득)
		자산 현황	주관적 자산 수준
	개인 부채	부채 현황	개인부채, 원리금 상환액
		부채 사유	부채 이유, 부채 원인(교육 대상, 의료 대상)
		부채 부담	부채 부담
9. 태도	가치관	사회관	일반적 신뢰
		개인관	미래계획
		가족관	가족 및 젠더 가치관
		세대관	세대간 부양 가치관
	성역할	성역할 기대	성역할 가치관
		가족 내 성역할	이상적 근로시간: 어머니, 아버지
	종교		종교 여부, 종교활동, 신앙심
10. 한국 고유조사	일가족 생애전망	삶의 중요도	일·삶·가족 중요도
		가족다양성 수용	다양한 자녀구성

영역	분류		조사항목
10. 한국 고유조사	일가족양립	일생활 미스매칭	일·가족·여가 현황 및 희망
		근로시간 현황	근로시간: 일가족양립 가능성, 불완전고용, 시간 관련 추가취업 희망, 단축근무 희망, 희망 근로시간
		근로환경 현황	근로환경: 신속한 복귀, 단시간 휴가
		긴급돌봄	긴급돌봄 대응 방법
		제도 이용 현황	일가족양립제도, 유연근무제도
	조직특성	조직 내 여성비율	조직 내 여성종사자, 여성관리자 비율
		노조	노조 여부, 노조 가입여부
	삶의 질	인식 및 가치관	주관적 계층 인식, 긍정적 기능, 탈물질주의
		관계맺음 유형	오프라인/온라인 관계 맺음
		삶의 불안정성	삶의 불안정성: 사회적 위험, 정책지원
지역사회환경		가족친화환경, 아동친화환경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4). 저출생·가족패널조사 예비조사 설문지.

참고자료

김은지·송효진·배호중·선보영·최진희·황정미(2019).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I): 청년층의 젠더화된 생애전망과 정책정합도 분석.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종서·장인수·최선영·임지영·계봉오·유삼현(2023). 가족과 출산 조사 개편 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선미·정성미·한진영·박민규·이소영(2023). 저출생 대응을 위한 패널조사 자료 구축 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선미·이동선·강민정·김영숙·한진영·최진희·이서현·박민규·이근복·마민지(2024). 저출생 대응 가족패널조사 사전연구(Ⅰ).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리서치(2024.11.2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저출생·가족패널조사」 예비조사 면접원 교육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24). 저출생·가족패널조사 예비조사 설문지.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GGP, Acknowledgement and Citation Guidelines, <https://www.ggp-i.org/acknowledgement-and-citation/> (최종 접속일: 2024.10.14.).

GGP, Data/GGS - Round II, <https://www.ggp-i.org/ggs-round-ii/> (최종 접속일: 2024.10.14.).

GGP, Generations and Gender Survey, <https://www.ggp-i.org/generations-and-gender-survey/> (최종 접속일: 2024.10.14.).

주관부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총괄과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